

## 초등학생의 흡연 실태와 흡연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우연<sup>\*†</sup> · 박영수<sup>\*\*</sup>

<sup>\*</sup>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sup>\*\*</sup>한국교원대학교 체육교육과

## Cigarette Smoking and Its Attitudinal Factors Among the 6 Grade Students in Korea

Woo-Yean Park<sup>\*</sup> · Youn Su Park<sup>\*\*</sup>

<sup>\*</sup>Major in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up>\*\*</sup>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ABSTRACT

**Background & Objectives:**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relationships between smoking behavior and smoking attitudes among 6th-grade students in Korea in order to provide knowledge on school-based programs for preventing adolescent smoking behaviors.

**Methods:**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464 students attending three public elementary schools in O city from June 13 to June 16, 2006. The total sample size is 458 (response rate = 98.7%).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cross tabu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First, smoking behavior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factors of gender, self-concept, family structure, sibling smoking, school achievement, relationship with teachers,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and smoking friends. The prevalence of ever-smoking was 12.7% among 6th grade students in this study. Students were most likely to initiate smoking in the 5th grade with curiosity and smoke at their own home.

Second, students showed negative attitude toward smoking overall. From the detailed section, students responded negatively about smoking in public places while they thought that adult smoking with moderate level was okay. Student who showed positive attitudes toward smoking in the present study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factors of self-concept, family environment, parental and sibling smoking status, school achievement,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and smoking friends.

Third, Students who had tried cigarette smoking were likely to report less negative

---

접 수 일 : 2006년 11월 19일, 채 택 일 : 2006년 12월 7일

<sup>†</sup>교신저자 : 박우연(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산 7번지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전공,  
Tel : 016-9782-8919, E-mail : pwooyean@hanmail.net)

attitudes toward tobacco than non-smoking students.

Fourth, this study found that smoking friends were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 of positives smoking attitudes. Other factor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moking attitudes were gender, relationship with friends, self-concept, relationship with teachers, paternal smoking status.

**Conclusions:** The study results suggest that smoking prevention programs focus on resisting peer influence and need to be community-incorporated and/or comprehensive from elementary to high school.

*Key Words:* smoking attitude, actual condition of smoking, elementary school, student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여러 가지 질병 중 흡연은 예방 가능한 사망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다행히 많은 금연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의 효과로 성인들의 흡연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오히려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심각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WHO, 1982).

청소년의 흡연은 시기적으로 성장기에 있고 총 흡연기간이 성인에 비해 길어지게 되어 흡연에 따른 폐해 정도가 크며 청소년 비행의 첫 걸음으로 이끄는 쾌락성 일탈 행위이다. 일단 흡연을 시작하게 되면 습관화되어 끊기 어렵고 금연을 하게 되더라도 그 영향이 오래 남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 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가족, 학교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 예를 들어 가족 간 갈등, 학업 중단 및 퇴학, 청소년의 비행 및 가출 등을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조기 예방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이다(박영규와 강운주, 1996).

이런 사안의 심각성 때문인지 그동안 청소년 흡연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

다. 그간의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흡연 연령이 점차 낮아져 초등학생에까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흡연 관련 연구들은 주로 중고생들 위주였고, 조사 내용도 흡연 실태나 몇 개의 관련 요인간의 분석 자료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흡연 습관이 고착화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연 교육의 흡연 예방 효과 분석 연구에서 교육 전·후에 흡연 지식과 태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관찰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김택민, 1991). 이러한 연구 결과는 흡연 예방과 금연 교육의 대상자 연령이 낮아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흡연을 하지 않는 초등학생들에게 아예 처음부터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에 착안, 현재 흡연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흡연할 가능성이 있는 초등학생의 흡연 시도에 중요하게 작용할 흡연태도와 흡연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관계 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흡연 예방, 금연교육의 기초 자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의 흡연 실태와 흡연 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흡연태도들을 실증적 자료에 바탕을 두어 이론적 논의와 통계적 검증을 함으로써, 흡연 예방을 위한 가장 적절

한 시기에 놓여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흡연의 정서적, 신체적, 교육적 그리고 사회적 해악성들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초등학생의 흡연 예방 대책에 대한 교육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필요하다고 하겠다.

## 2.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

이 연구는 개인환경 요인, 가정환경 요인, 학교환경 요인에 따른 흡연태도와 흡연실태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초등학생들의 흡연예방과 이와 관련된 건강 생활 실천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 목적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배경변인에 따른 흡연 실태는 어떠한가?
- 2) 배경변인에 따른 흡연태도는 어떠한가?
- 3) 흡연 실태와 흡연태도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 4) 흡연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O시 소재의 공립 초등학교 3개교를 연구자가 편의추출하고, 해당학교 6학년 총 46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6부를 제외한 최종 458부가 자료 처리 되었다.

### 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초등학생의 흡연

실태와 흡연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구조화된 자기 기입식 설문지이다. 선행연구(지인순, 1989; 문은영, 2002; 김정숙, 2004)를 기초로 하여 이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였다.

설문지의 적합성 검토와 타당도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H시의 J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6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분석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설문지의 각 내용에 따른 세부적인 문항 구성 및 문항 수는 <표 1>와 같다.

<표 1> 설문지의 문항 및 구성 내용

구분	문항내용	문항 번호	문항수
흡연 태도	장래흡연의사, 흡연시 기분, 성별흡연허용성, 흡연권유거부 등	1~14	14
개인 환경	성별, 거주지, 자아개념	15~24	10
가정 환경	가족구성원 형태, 가정분위기, 가족흡연여부, 부모의 양육태도 등	25~30	6
학교 환경	성적, 학교생활만족도, 친구흡연여부 등	31~34, 40	5
흡연 실태	흡연경험여부, 흡연동기, 흡연장소, 최초 흡연시기 등	35~39	5
전체			40

#### 1) 개인 환경 요인 조사

개인이 생활의 장에서 자신에 대하여 갖는 지각, 관념, 태도의 체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원식의 자아개념 검사를 수정 축소하여 김기정(1984)이 제작한 도구를 연구자가 수정·보완 사용하였으며,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

도는 Cronbach의  $\alpha$ 계수가 0.88이었다.

이 도구는 도덕적 자아개념, 성격적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의 3개 하위 영역이 있으며 긍정적 문항 5문항과 3개의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그렇다' 1점부터 '전혀 아니다' 5점까지 Likert scale의 5단계 척도로 중위수를 기준으로 부정적 집단과 긍정적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 2) 가정환경요인 조사

가정환경은 문헌고찰에 의하여 가족 구성원 형태, 가족원(부, 모, 형제/자매)의 흡연 여부, 가정 분위기, 부모의 양육태도 등의 변인을 선택하여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만족도는 5점 척도로 하고, 분석을 할 때에는 3단계로 하였다.

### 3) 학교환경 요인 조사

학교환경은 문헌고찰에 의하여 학교 성적, 학교생활 만족도, 흡연 친구 유무 등의 변인을 선택하여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만족도는 5점 척도로 하고, 분석할 때에는 3단계로 하였다.

### 4) 흡연태도 측정도구

초등학생의 흡연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WHO(1982)가 흡연에 대한 조사방법 회의에서 발간한 Guidelines for the content of tobacco smoking surveys of the general population의 설문지를 박영규와 강운주(1996)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내용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토한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이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도구를 수정 보완하였다.

이 도구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흡연태도 측정 문항은 Likert scale에 의한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측정하였으며 이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계수가 0.87이었다.

## 3. 연구절차

### 1) 예비조사

예비 조사는 선정된 연구 도구의 적절성과 문제점 및 검사 소요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의 내용과 동료 토론, 면접에서 얻어진 내용을 토대로 예비 질문지를 작성하여 체육교육과 및 타 대학교수 2인, 보건학 박사 학위를 소지한 2인, 학교보건 석사 학위를 소지한 3인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은 후,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를 실시한 후, 문항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소요되는 시간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 후 질문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 2) 본조사

본조사는 초등학생의 흡연 실태와 흡연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6년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하였다. 질문지의 배부 및 회수 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해당 보건 교사와 6학년 담임 교사를 만나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배부하고, 즉시 회수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 4. 자료처리

이 연구는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 중에서 기재내용이 신뢰성이 없거나 부실하다고 판단된 자료 6부는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분석 가능한 설문지 총 458부를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분석하기 위하여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배경변인, 흡연아동의 흡연행위 관련 실태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2) 배경변인에 따른 흡연경험여부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3) 배경변인에 따른 흡연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t-검정과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 4) 흡연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결과 및 고찰

#### 1. 배경변인에 따른 흡연실태

##### 1) 배경변인에 따른 흡연경험여부

연구대상자들의 배경변인에 따른 흡연경험여부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흡연 경험율은 전체 458명의 학생 중 58명의 학생이 흡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12.7%의 흡연경험을 보였다. 이 중, n값이 적은 항목은 결과해석에 있어 유의를 기해야 함을 밝힌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 18.0%, 여학생 6.5%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흡연경험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p < .05$ ).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배경변인 중 성별, 자아개념 수준, 가족구성형태, 가정 분위기, 형제자매의 흡연여부, 학생들의 학업성적, 교사와의 관계, 급우와의 관계, 학교생활만족도, 흡연친구여부 등의 변인에 따라 학생들의 흡연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의 경우 남학생의 경우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이 18.0%로 여학생(6.5%)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자아개념 수준에 따라서는 자아개념이 긍정

적인 학생의 흡연경험이 7.1%인데 반해, 자아개념이 부정적인 학생의 흡연경험은 17.5%로 나타나, 자아개념이 부정적인 학생들의 흡연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p < .01$ ). 그러나, 김순덕(2002)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흡연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호기심이라든지 여러 이유에서 흡연을 경험하고 시도해 본다. 그것은 흡연을 함으로써 얻어진 자신감과 자아개념을 보완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다. 한국청소년 개발원(1999)의 연구에 따르면 흡연하는 청소년의 일반적인 정서는 불안감이 높고, 자아존중도와 자기 효능감이 낮아, 흡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 형태별로는 편부모나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학생 23.5%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학생(11.8%)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흡연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정상적인 가정의 형태를 가진 학생보다 결손가정의 학생일수록 흡연 경험율이 높게 나온 것은 최혜영(2000), 박연정(2002)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특히 김순덕(2002)의 연구에서 부모들이 별거·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 이탈 행위로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간경애(1999), 최정순(1999)의 연구에서는 흡연과 가족 구성원의 형태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정 분위기 수준별로는 가정이 매우 화목한 편인 학생 9.8%, 보통인 학생(19.3%)이었으며,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편인 학생 37.5%의 흡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할수록 학생들의 흡연경험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p < .01$ ). 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못한 자녀에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간경애(1999), 김경주(2001), 박연정(2002), 박일(2004)의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되고 어색한 분위기는 가정으로부터 자녀를 유리시킴으로써 반사

회적 활동을 할 가능성을 갖게 하고 결국 흡연 경험과의 연관성을 지닐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요구되며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가정이 끼

치는 교육적 감동 감화는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부모의 흡연여부에 따른 흡연경험여부는 학생의 흡연경험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표 2> 배경변인에 따른 흡연경험여부 단위 : 명(%)

변인	구분	흡연경험군	비흡연경험군	계	$\chi^2$	df	
개인환경	성별	남	44 (18.0)	200 (82.0)	244(100.0)	13.611***	1
		여	14 ( 6.5)	200 (93.5)	214(100.0)		
	자아개념	긍정	15 ( 7.1)	197 (92.9)	212(100.0)	10.219**	1
		부정	43 (17.5)	203 (82.5)	246(100.0)		
		거주지	아파트	28 (12.5)	196 (87.5)		
주택	24 (13.0)		161 (87.0)	185(100.0)			
기타	6 (12.2)		43 (87.8)	49(100.0)			
가정환경	가족구성 형태	양친	50 (11.8)	374 (88.2)	424(100.0)	3.920*	1
		편부모/기타	8 (23.5)	26 (76.5)	34(100.0)		
	가정 분위기	화목	33 ( 9.8)	303 (90.2)	336(100.0)	11.453**	2
		비화목	3 (37.5)	5 (62.5)	8(100.0)		
	부모 양육태도	민주적	39 (11.3)	305 (88.7)	344(100.0)	2.199	1
		엄격/독단	19 (16.7)	95 (83.3)	114(100.0)		
	부의 흡연여부	핀다	35 (13.3)	229 (86.7)	264(100.0)	.199	1
		안 핀다	23 (11.9)	171 (88.1)	194(100.0)		
	모의 흡연여부	핀다	3 (20.0)	12 (80.0)	15(100.0)	.755	1
		안 핀다	55 (12.4)	388 (87.6)	443(100.0)		
형제자매흡연	핀다	6 (60.0)	4 (40.0)	10(100.0)	20.712***	1	
	안 핀다	52 (11.6)	396 (88.4)	448(100.0)			
학교환경	학업성적	상	8 ( 8.2)	90 (91.8)	98(100.0)	15.372***	2
		중	32 (10.9)	262 (89.1)	294(100.0)		
		하	18 (27.3)	48 (72.7)	66(100.0)		
	교사와의 관계	친밀	30 ( 9.4)	290 (90.6)	320(100.0)	12.298**	2
		비친밀	9 (27.3)	24 (72.7)	33(100.0)		
급우와의 관계	상	43 (11.6)	327 (88.4)	370(100.0)	2.511	2	
	중	10 (15.4)	55 (84.6)	65(100.0)			
	하	5 (21.7)	18 (78.3)	23(100.0)			
학교생활 만족도	상	41 (11.0)	331 (89.0)	372(100.0)	19.320***	2	
	중	5 ( 9.3)	49 (90.7)	54(100.0)			
흡연 친구	하	12 (37.5)	20 (62.5)	32(100.0)	28.800***	1	
	무	32 ( 8.6)	339 (91.4)	371(100.0)			
	유	26 (29.9)	61 (70.1)	87(100.0)			
전체		58(12.7)	400(87.3)	458(100.0)			

\*p<0.05, \*\*p<0.01, \*\*\*p<0.001

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김순덕(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최정순(1999)의 연구에서는 흡연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최혜영(2000), 박미라(2002)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흡연이, 박연정(2002)의 연구에서는 아버지 흡연이, 박일(2004)의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흡연유무가 유의적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형제·자매의 흡연여부에 따라서는 흡연경험군의 학생 중, 형제·자매가 흡연을 하는 학생이 60.0%로 나타나, 형제·자매가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11.6%)의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p<.001$ ). 이는 김경주(2001), 박미라(2002), 박연정(2002), 김태숙(2003)의 연구에서도 형제자매의 흡연이 학생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

성적 수준에 따라서는 흡연경험군의 학생 중에서 성적이 하인 학생 27.3%, 중인 학생(10.9%)로 이는 성적이 상인 학생(8.2%)보다 흡연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최혜영(2000), 김경주(2001), 김순덕(2002), 박연정(2002), 김태숙(2003)의 연구에서도 성적이 낮은 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흡연 경험율을 보여 성적이 낮을수록 흡연경험이 많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박미라(2002)의 연구에서는 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교사와의 관계 수준에 따라서는 흡연경험군의 학생 중,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학생 9.4%, 보통인 학생(18.1%)이었으며,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못한 학생(27.3%)으로 나타나,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못한 학생일수록 흡연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그러나, 김순덕(2002)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 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라서는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는 학생 11.0%, 보통인 학생(9.3%)인 반면,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은 학생(37.5%)로 나타나, 학교생활에 만족도가 낮을수록 학생들

의 흡연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p<.001$ ).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고 동시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및 활동에 만족을 느낀다면 일탈행위를 덜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최혜영(2000), 김경주(2001)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으나, 최정순(1999), 김순덕(2002), 박연정(2002)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흡연친구의 여부에 따라서는 흡연경험군의 학생 중, 흡연친구가 없는 학생 8.6%에 불과한 반면, 흡연친구가 있는 학생 29.9%로 나타나 친구들의 흡연이 학생들의 흡연 경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001$ ). 이는 흡연친구에 따른 흡연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 최정순(1999), 김경주(2001), 김순덕(2002), 박연정(2002), 박일(2004)의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어 초등학교 시기에 흡연하는 친구와 어울려 지내기는 흡연행위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경계해야 할 사항이며, 이 시기가 또래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을 경험한 연구 대상의 개인, 가정, 학교환경들이 흡연행위에 상당한 작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자아개념이 인간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 변인이라고 했을 때, 자기존중감이 높은 자아가 흡연의 유혹에 부딪혔을 때 그 유혹을 당당히 뿌리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은 일차적 사회집단으로써 한 인간의 가치관, 행동 등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의 행동이나 분위기는 개인의 심리 상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는 가정 다음으로 가장 많이 생활하는 곳으로, 성적 위주의 분위기나 학교생활의 적응 및 만족도에 따라 개인의 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친구의 흡연은 그 또래의 호기심이나 어울리기 위한 수단으로써 한 번 쯤 흡연을 접하게 될 기회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2) 흡연행태**

흡연경험이 있는 연구 대상자들의 흡연행태 분석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음 흡연을 경험한 시기는 초등학교 5학년이 48.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초등학교 4학년 이전(46.6%), 초등학교 6학년(5.2%)로 연구대상자들이 처음 흡연을 접하게 되는 것은 주로 초등학교 4, 5학년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4~6학년이 가장 많았다고 한 것(한선희, 1999)과 간경애(1999), 최혜영(2000), 박미라(2002)의 연구에서 흡연을 처음 경험해 본 시기가 5학년으로 각각 20.4%, 32.6%, 24.4%의 가장 많은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흡연경험의 최초 시기의 대부분이 4, 5학년 인 것을 감안해 볼 때, 흡연 예방교육의 시기가 그 이전부터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의 흡연경험이 상습적인 흡연이 아닌 뼈끔 담배를 한두 번 피워 본 정도로 해석될 수 있지만 흡연을 시도하는 행동은 흡연에 대한 허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에 대한 노출 경험이 장래 흡연

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으므로 조기 흡연 경험은 흡연예방프로그램 운영 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담배를 피우게 된 동기는 호기심에서 피우게 된 경우가 5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구나 선배의 권유(27.6%), 기타(10.3%), 어른을 흉내 내기 위해 (3.4%), 멋있게 보여서(1.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간경애(1999), 최혜영(2000), 김경주(2001), 박미라(2002), 박연정(2002)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백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박일(2004)의 연구에서 호기심이 73.8%로 가장 높은 결과와 일치하고 있는 등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호기심이 주요 동기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친구나 선배의 권유 27.6%도 그 전 연구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또래 집단 간에 어울리기 위한 매개로 흡연을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잘 논의해 보아야 한다.

담배를 피운 장소는 집(우리 집 또는 친구 집)이 28명(48.3%)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터나 놀이터 19명(32.8%), 기타 11명(1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구에도 비슷한 백분율을 보이고 있는데, 부모님이 외출이나 맞벌이 등의 이유로 집을 비운 경우에 생길 수

**<표 3> 대상자들의 흡연형태** 단위 : 명(%)

구분		명	%
최초흡연 경험시기	초등학교 4학년 이전	27	46.6
	초등학교 5학년	28	48.3
	초등학교 6학년	3	5.2
흡연동기	친구나 선배의 권유	16	27.6
	호기심	33	56.9
	멋있게 보여서	1	1.7
	어른을 흉내 내기 위하여	2	3.4
흡연장소	기타	6	10.3
	집(우리 집 또는 친구 집)	28	48.3
	공터, 놀이터	19	32.8
	기타	11	19.0
계		58	100.0



있는 경우이므로 가정에서의 교육이 절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놀이터 등도 우범지역으로 전락되지 않으려면 건전하고 밝은 장소로의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습관 형성 과정 중 여러 가지 이유로 흡연충동을 갖게 되는데, 그 중 타인의 흡연행동을 관찰하면서 처음 갖게 되는 흡연충동단계의 대표적인 이유로 비록 한 두 번의 뼈끔 담배이기는 하지만, 주요 타인인 부모나 친구의 흡연행위를 보고 호기심, 동조 등으로 인해 흡연을 접하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관찰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겠다.

## 2. 배경변인에 따른 흡연태도

### 1) 흡연에 대한 태도

연구대상자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 분석결과

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 대상자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는 전체 평점 5점 만점에 1.59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흡연을 거부하는 경향이었으며, 남학생 1.72, 여학생 1.45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와 남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가 좀 더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해 가장 거부적인 태도(1.34)를 보였고, 그 다음이 대중매체로 인한 충동(1.36), 흡연할 기회 시에 흡연여부(1.39)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인들도 적당히만 담배를 피우면 된다는 허용적인 태도(2.13)가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형제와 친구의 흡연 시 만류할 것 인지의 태도(2.00), 장래 배우자의 흡연에 대한 수용태도(1.87), 한 두 번의 흡연 허용태도(1.85), 남자는 담배를 피워도 되지만 여자는 피워서는 안 된다는 성별에 따른 수용도(1.53), 흡연 권유 시 거절한다는 태도(1.52), 등의 순으로

<표 4> 흡연에 대한 태도

흡연태도	남	여	계	t
	M±SD	M±SD	M±SD	
장래흡연의향	1.68 ± .95	1.25 ± .61	1.48 ± .84	5.735***
어른스럽거나 멋있어 보임	1.59 ± .95	1.39 ± .80	1.50 ± .89	2.479*
장래배우자흡연	1.96 ± 1.13	1.77 ± 1.02	1.87 ± 1.09	1.904
한 두 번의 흡연 허용	2.02 ± 1.27	1.66 ± .96	1.85 ± 1.15	3.377**
성인흡연 허용	2.28 ± 1.33	1.96 ± 1.10	2.13 ± 1.24	2.780**
흡연 기회시 흡연여부	1.52 ± .85	1.24 ± .65	1.39 ± .78	3.947***
대중매체로 인한 충동	1.46 ± .80	1.25 ± .66	1.36 ± .75	3.025**
성별 흡연 허용 정도	1.61 ± .92	1.43 ± .78	1.53 ± .86	2.397*
친구 흡연시 태도	1.52 ± .84	1.26 ± .65	1.40 ± .77	3.760***
흡연 시 기분	1.59 ± .84	1.41 ± .77	1.50 ± .82	2.373
형제·친구 흡연만류※	2.20 ± 1.34	1.77 ± 1.11	2.00 ± 1.25	3.769***
흡연 권유거절※	1.68 ± 1.16	1.32 ± .77	1.52 ± 1.01	3.986***
공공장소 흡연금지※	1.43 ± .99	1.22 ± .55	1.34 ± .82	2.848**
법 규제※	1.53 ± 1.02	1.41 ± .85	1.47 ± .95	1.397**
계	1.72 ± .60	1.45 ± .53	1.59 ± .58	5.032***

※ 표시 항목의 경우 역산한 점수임.

\*p<.05, \*\*p<.01, \*\*\*p<.001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은영(2002)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가장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성인의 흡연 허용(2.28), 형제·친구의 흡연 만류(2.20), 한 두 번의 흡연은 괜찮다(2.02) 등으로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금지(1.43), 대중매체로 인한 충동(1.46) 순으로 가장 거부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남학생과 같이 역시 성인의 흡연 허용(1.96), 형제·친구의 흡연 만류(1.77)에서 가장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이 장래 배우자의 흡연에 대한 태도(1.77)로 나타났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1.22), 친구 흡연 시 같이 할 수도 있다(1.40), 법으로 규제한다(1.47)에서 가장 거부적인 태도를 보였다.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른 흡연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장래배우자의 흡연에 대한 태도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전 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흡연에 수용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은영(2002)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성별에 따른 흡연정도,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금지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인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자들이 지금 현재는 흡연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래 흡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항목 중 성인들의 흡연허용에 긍정적이고 가장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이를 말해 준다. 또한 친구의 흡연에 만류하지 않는다는 태도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타인의 행위에 자신은 관여나 간섭하지 않겠다는 요즘의 세태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태도가 가장 거부적으로 나온 것은 그간의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금연구역의 확산 및 분리, 경고문 부착, 각종 법적 제도적인 규제를 해 온 것에 대한 소기의 성과라 할 수 있다.

## 2) 배경변인에 따른 흡연태도

연구대상자들의 배경변인에 따른 흡연태도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배경변인 중, 자아개념 수준, 가정 분위기, 아버지의 흡연 여부, 어머니의 흡연 여부, 형제·자매의 흡연 여부, 학업 성적, 학교생활, 흡연친구의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자아개념 수준별로는 자아개념이 부정적인 학생이 1.65로 긍정적인 학생(1.53)보다 흡연태도가 더 수용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가정 분위기에 따라서는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학생 1.82로 흡연태도가 수용적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통이다(1.72), 좋은 편이다(1.55)의 순으로 나타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할 수록 학생들이 흡연에 대한 태도가 수용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이러한 결과는 최혜영(2000), 박미라(2002)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아버지의 흡연여부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 1.66이 아버지가 흡연을 하고 있지 않는 학생(1.50)보다 흡연에 수용적인 태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p < .01$ ), 어머니의 흡연여부별로는 어머니가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 1.90이 어머니가 흡연을 하고 있지 않은 학생(1.58)보다 흡연수용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부의 흡연여부가 흡연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박미라(2002)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형제·자매의 흡연여부에 따라서는도 형제·자매가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 1.96이 그렇지

지 않은 학생(1.59)보다 높게 나타났다( $p<.05$ ). 이와 같은 결과는 최혜영(2000), 박미라(2002)의 연구에서도 형제자매의 흡연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었다.

학업 성적별로는 하위권 학생의 흡연수용태도가 1.8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위권(1.57)과 상위권(1.52)으로 나타나 하위권 학생들의 흡연수용태도가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p<.01$ ). 이경미 외(1998), 최혜영(2000), 박미라(2002)의 연구에서도 성적이 낮을수록 흡연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었다.

학교생활태도에 따라서는 학교생활을 잘하지 못한 편인 학생 2.01의 흡연수용태도가 잘하는 편(1.57)과 보통(1.50)인 학생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이러한 결과는 최혜영(2000)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표 5> 배경변인에 따른 흡연태도

단위 : 명(%)

변 인	구 분	N	M	SD	t/F	
개인 환경	자아개념	긍정	212	1.53	.60	-2.202*
		부정	246	1.65	.57	
	거주지	아파트	224	1.61	.54	.153
		주택 기타	185 49	1.58 1.61	.63 .61	
가정 환경	가족구성원 형태	양친	424	1.59	.58	-.716
	편부/편모	34	1.66	.65		
	가정 분위기	학목	336	1.55	.56	4.220*
		중 비학목	114 8	1.72 1.82	.62 .64	
	부모 양육태도	민주적	344	1.58	.51	-1.212
		엄격/독단	114	1.65	.59	
	부의 흡연여부	유	264	1.66	.62	2.991**
		무	194	1.50	.51	
	모의 흡연여부	유	15	1.90	.63	2.096*
		무	443	1.58	.58	
	형제/자매흡연 흡연여부	유	10	1.96	.62	2.028*
		무	448	1.59	.60	
학업성적	상	98	1.52	.52	6.946**	
	중	294	1.57	.54		
	하	66	1.84	.77		
교사와의관계	친밀	320	1.56	.57	2.683	
	중 비친밀	105 33	1.65 1.78	.60 .69		
학교 환경	상	370	1.61	.60	1.393	
	급우와의관계	중	65	1.49		.54
학교생활 만족도	하	23	1.66	.49	9.271***	
	상	372	1.57	.58		
	중	54	1.50	.48		
흡연친구	유	32	2.01	.62	-7.622***	
	무	87 371	2.00 1.50	.79 .48		

\* $p<.05$ , \*\* $p<.01$ , \*\*\* $p<.001$

마지막으로 흡연 친구 여부에 따라서는 흡연 친구가 있는 학생 2.00이 없는 학생(1.50)에 비해 높은 흡연수용태도를 보였다( $p < .001$ ). 이는 최혜영(2000), 박미라(2002), 이종숙(2004)의 연구에서도 흡연친구유무가 흡연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었다.

이는 흡연경험 여부에 따른 결과와 거의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개인, 가정, 학교 환경적 요인들이 연구대상이 가진 흡연에 대한 태도가 수용적 또는 거부적으로 작용하는데 중요변인이 되기 때문이다. 즉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전 가족이 금연을 하며, 학교생활을 만족하게 하는 학생일수록 흡연에 대한 거부적인 태도가 굳게 자리 잡음을 알 수 있다.

### 3. 흡연경험여부에 따른 흡연태도

흡연경험여부에 따른 흡연태도가 어떠한지를 살펴 본 결과 <표 6>와 같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흡연경험여부에 따른 흡연태도 분석 결과,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 2.40이 흡연경험이 없는 학생(1.48)에 비해 흡연에 수용적인 태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따라서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흡연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흡연에 대한 태도가 더욱 수용적이고 관대함을 알 수 있다( $p < .001$ ).

<표 6> 흡연경험여부에 따른 흡연태도

단위 : 명(%)

구분	N	M	SD	t
비흡연경험군	400	1.48	.46	-13.187***
흡연경험군	58	2.40	.69	

\*\*\*  $p < .001$

이는 박영규, 강윤주(1996), 최혜영(2000), 김경주(2001), 박미라(2002), 박연정(2002), 김동주(2003), 이종숙(2003)의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이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최정순(1999)의 연구에서는 흡연태도 항목 중, 성인들의 흡연허용 항목이 류황건 외(2002)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흡연허용정도 항목이 흡연경험군과 비흡연경험군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습적인 흡연행위가 아니라 한 두 번의 빼꼼 담배를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흡연경험을 시도한다는 것은 흡연에 대해 관대하고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 4. 흡연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흡연태도와 변인간의 상관관계

흡연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표 7>과 같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 $r = .228$ )과 아버지의 흡연여부( $r = .139$ ), 어머니의 흡연여부( $r = .139$ ), 형제·자매의 흡연여부( $r = .095$ ), 흡연 친구 여부( $r = .336$ ) 등의 변수와 흡연수용태도 변수 간에는 정적(+)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아개념( $r = -.182$ )과 가정 분위기( $r = -.162$ ), 학업성적( $r = -.146$ ), 선생님과의 관계( $r = -.160$ ), 학교생활태도( $r = -.152$ )와는 부적(-)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변인간의 상관관계

구 분	성별	자아개념	가족 구성형태	가정 분위기	양육 태도	부 흡연	모 흡연	형제 흡연	학업 성적	교사와의 관계	급우와의 관계	학교 생활	흡연 친구	흡연 태도
성별	1.000													
자아개념	-.152**	1.000												
가족 구성형태	.132**	-.047	1.000											
가정 분위기	-.045	.390**	-.155**	1.000										
부모의 양육태도	.094*	-.214**	.010	-.268**	1.000									
부의 흡연여부	.030	-.063	-.027	-.080	-.007	1.000								
모의 흡연여부	.025	-.086	.041	-.135**	.064	.108*	1.000							
형제자매의 흡연여부	.020	-.060	.072	-.140**	.087	-.023	.056	1.000						
학업성적	-.030	.242**	-.173**	.131**	-.093*	-.137**	-.084	-.043	1.000					
교사와의 관계	-.138**	.313**	-.098*	.226**	-.115*	-.013	-.026	-.027	.184**	1.000				
급우와의 관계	-.024	.393**	-.133**	.272**	-.163**	-.025	-.024	-.002	.137**	.372**	1.000			
학교생활	-.117*	.342**	-.147**	.356**	-.143**	-.005	-.115*	-.030	.169**	.317**	.503**	1.000		
흡연친구	.097*	-.003	.011	-.051	.069	.021	.099*	.042	-.141**	-.004	.065	-.106*	1.000	
흡연태도	.228**	-.182**	.033	-.162**	.057	.139**	.098*	.095*	-.146**	-.160**	.031	-.152**	.336**	1.000

더미변수: 성별(0:여, 1:남), 가족구성형태(0:부모 함께, 1:편부모 등), 부모의 양육태도(0:민주적, 1:독단적), 아버지의 흡연여부(0:무, 1:유), 어머니의 흡연여부(0: 무, 1:유), 형제자매의 흡연여부(0:무, 1:유), 흡연친구(0:없음, 1:있음)  
\*p<.05, \*\*p<.01

2) 흡연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분석

학생들의 개인 환경, 가정환경, 학교환경 변인들이 흡연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에 제시된 것과 같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먼저 개인 환경 변인만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7.4%로 낮았으며, 성별은 유의한 정적(+의 영향을, 자아개념이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정 환경관련 변인을 개인 환경과 함께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10.7%로 3.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아버지의 흡연여부만이 유의한 정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 환경변수와 가정환경변수,

그리고 학교환경 변인을 모두 투입한 결과 독립변수들의 흡연수용태도에 대한 분산 설명력은 22.7%로 12.0%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흡연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성별, 아버지의 흡연여부, 급우와의 관계, 흡연친구의 여부 등의 변인은 정적(+의 영향을, 자아개념수준과 선생님과의 관계 변인은 부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표준화 회귀계수를 살펴본 결과, 흡연친구 여부( $\beta=.207, p<.001$ )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급우와의 관계( $\beta=.166, p<.01$ ), 성별( $\beta=.156, p<.001$ ), 자아개념( $\beta=-.117, p<.01$ ), 선생님과의 관계( $\beta$

<표 8> 흡연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구 분		$\beta$	t	$\beta$	t	$\beta$	t	R <sup>2</sup> 변화량
개인 환경	성별 (0:여, 1:남)	.205	4.484***	.206	4.502***	.156	3.599***	-
	자아개념	-.151	-3.302**	-.102	-2.077*	-.117	-2.321*	
가정 환경	가족구성형태 (0:부모함께)			-.017	-.378	-.016	-.372	.033
	가정분위기			-.093	-1.840	-.070	-1.429	
	부모의 양육태도 (0:민주적)			-.019	-.396	-.028	-.646	
	아버지의 흡연여부 (0:무)			.114	2.520*	.111	2.596*	
	어머니의 흡연여부 (0:무)			.057	1.250	.022	.509	
	형제자매의 흡연여부 (0:무)			.074	1.626	.061	1.436	
학교 환경	학업성적					-.038	-.836	.120
	선생님과의 관계					-.116	-2.468*	
	급우와의 관계					.166	3.165**	
	학교생활					-.080	-1.557	
	흡연친구 (0:없음)					.287	6.652***	
R <sup>2</sup>			.074		.107		.227	
F			18.183***		6.738***		10.029***	

\*p<.05, \*\*p<.01, \*\*\*p<.001

=-.166, p<.05), 아버지의 흡연여부( $\beta$ =.111, p<.05) 등의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혜영(2000)의 연구에서도 흡연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친구, 아버지의 흡연이 관련성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경미 등(1998)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은 성적, 흡연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여학생은 성적, 흡연 경험, 부모의 흡연 여부, 가족 구성원의 형태 등 남녀 모두 성적, 흡연경험이 관련성 있는 요인으로 나타나 이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흡연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을 살펴보면, 흡연친구가 있는 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가 수용적으로 가장 높으며,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그리고 자아개념이 낮을수록,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아버지가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가 수용적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연구대상자들이 또래집단과 어울리는 시간이 점차로 많아지는 청소년기로, 친구들의 행위를 모방해 보려는 연구대상자들의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 하겠다. 이는 초등학교 6학년의 시기가 또래 집단과 어울리는 시간이 점차로 많아지는 청소년기로 친구들의 행위를 모방하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등 친구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또래와 어울리고 싶어서 친구의 흡연을 거절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흡연하는 친구의 영향을 받을지의 결정은 학생들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즉 자존감이 굳건히 형성되어야 할 시기라고 해석되어진다.

이러한 자존감 형성은 아버지의 역할모델이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즉 아버지가 흡연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 자연스럽게 성인들의 흡연에 어느 정도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며 현재는 흡연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잠재적 잠재 흡연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자존감과 긍정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환경과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흡연에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이라 하겠다.

####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의 흡연 실태와 흡연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초등학생들의 흡연예방과 이와 관련된 건강 생활 실천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0시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6학년 464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법에 의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458부를 빈도분석, 교차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초등학교 6학년의 흡연 실태를 살펴보면, 성별, 자아개념, 가족구성원형태, 형제자매의 흡연여부, 성적,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만족도, 흡연친구의 유무 등의 변인에 따라 흡연경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 경험율은 12.7%이며 최초 흡연시기는 5학년이, 흡연 동기는 호기심이, 흡연 장소는 집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 행위가 개인 뿐 아니라 가정, 학교환경 등 복합적인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초흡연경험 연령이 점차 하향화 되어가고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으며, 4학년 이전부터라는 응답도 거의 같은 비율로 나와 흡연예방교육이 4학년 이전부터 실시해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흡연 장소가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부모의 맞벌이 영향으로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인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흡연에 대한 수용적 태도는 전반적으

로 낮아 흡연에 대해 대부분 거부적인 반응을 보였다. 세부 항목 중, 성인들도 적당히만 담배를 피우면 된다는 태도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아 성인 흡연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한 수용적 태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개념, 가정 분위기, 부모, 형제자매의 흡연여부, 성적, 학교생활 만족도, 흡연친구의 유무 등의 변인에 따라 흡연경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태도 중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금지에 가장 거부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그간의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금연구역의 확대, 각종 법적 제도적인 규제를 해 온 것에 대한 소기의 성과로 사료된다.

셋째,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이 흡연에 대해 좀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상습적인 흡연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흡연을 경험해 본 것은 흡연에 대해 관대하고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넷째, 흡연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을 분석한 결과, 흡연친구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급우와의 관계, 성별, 자아개념, 선생님과의 관계, 아버지의 흡연여부 등의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흡연친구가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에 비하여,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그리고 자아개념이 낮을수록, 선생님과의 관계가 나쁠수록, 아버지가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이 비 흡연 학생에 비해 흡연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높은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연구대상자들이 또래와 어울리면서 그 또래의 사고, 행동 등에 영향을 받거나 따라해보고 싶은 심리적 작용의 결과로 사료되며 자아개념 역시 흡연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확실한 자기 정체감이 흡연에 대한 태도에 강한 거부를 보일 수 있고 또한 아버지의

흡연은 바로 자녀의 흡연태도에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 가정에서의 금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후속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흡연경험연령이 하향화 되고 있으므로, 흡연최초경험시기를 늦출 수 있는 초·중·고를 연계한 종단적인 흡연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와 교사는 아동의 역할모델로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가족설문, 교사의 흡연 실태를 고려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흡연친구의 유무가 흡연태도에 중요한 영향력을 주므로, 집단 상담이나 자존감 높이기, 긍정적 역할모델친구 만들기 등의 과외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흡연의 유해성을 지식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실험연구나 모형 등의 체험기회를 손쉽게 가질 수 있도록 학교 뿐 아니라, 보건소나 지역 센터와의 자유로운 연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간경애. 초등학생의 음주 및 흡연경험 실태 조사[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대학원 .1999
2. 강윤주, 박영규. 학동기 아동의 흡연행동 및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조사. 대한 가정의학회지 1996. 17(9). 798-809.
3. 김기정. 자아개념의 변화와 그 관련요인의 탐색. 학생생활연구 1984. 3.
4. 김경주. 광주·전남지역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흡연실태[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1.
5. 김순덕. 초등학생들의 흡연행위 실태와 예방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탐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6. 김정숙. 울산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 실태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교육대학원. 2004 .
7. 김태숙. 청소년 흡연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석사학위논문]. 대전대경 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03.
8. 김택민. 고등학생들의 금연교육 효과 분석. 한국역학회지 1991. 14(2). 175-183.
9. 문은영, 윤평복, 이상희, 최혜옥. 중학생의 흡연수용태도와 흡연경험여부에 영향하는 요인. 전인과학연구소 학술모음집 창간호. 2002. 143-168.
10. 박미라. 초등학교 6학년아동의 흡연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교육대학원 .2002
11. 박연정.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흡연 행동, 흡연지식, 흡연태도와 흡연과의 관계. 동덕여자대학교 여성개발원.
12. 박 일. 초등학생들의 흡연 실태와 관련요인 분석[석사학위논문]. 금오공과대학교대학원. 2004.
13. 이경미, 박재용, 한창현. 초등학교 학생의 흡연지식, 흡연태도와 흡연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998. 13(1).
14. 이종숙.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흡연지식과 흡연의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대학원. 2004.
15. 이해자. 초등학생의 흡연 실태와 영향요인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행정대학원 .2003.
16. 정지연. 일부 중학생의 흡연 실태와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환경보건대학원. 2002.
17. 지인순. 흡연수용태도 결정요인[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1989.
18. 청소년 대화의 광장. 청소년 흡연행동-습관형성과정·실태·대책. 청소년대화의 광장. 1993.
19. 최정순. 초등학생의 흡연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1999.
20. 최혜영. 초등학생의 흡연지식·흡연태도와 흡연행동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



- 여자대학교보건대학원. 2000.
21.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흡연과 건강. 청소년 흡연의 문제와 대책. 건강소식 1999. 22(5). 14-19.
  22.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제5차 전국 중·고등 학생 흡연 실태에 대한 조사. 2002.
  23. 한선희. 중학생의 약물남용 태도 및 행동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1999.
  24.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Guidelines for school health programs to prevent tobacco use and addiction. Journal of School Health 1994. 64(9). 353-360.
  25. OECD. Health data. 2003.
  26. WHO. Guidelines for the conduct of tobacco smoking surveys of the population. Report of a WHO meeting held in Helsinki, Finland. 1982.
  27. WHO. Guidelines for controlling and monitoring the tobacco epidemic. Report of a WHO meeting held in Geneva. 1998.